데이빗리 목사

사도행전반

교재

제 1 장 사도행전 서론

1. 제목

지금까지 사도행전(The Acts of the Apostles)이라고 불려 왔지만 사실은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은 책에 언급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책은 '행전'(Acts)이라고 자주 불렸다. 열 두 제자들 중에 오직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이 이 책에 언급되어 있고 대부분 내용은 바울에게 할애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지금까지 "사도들의 활동", "모든 사도들의 행전", "사도행전"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져 왔다.

2. 역사적 배경

사도행전의 내용에 언급되었던 역사는 로마 제국의 전성기 때였다. 대체적으로 그 기간은 A.D. 31-63년경이다. 이 동안의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A.D. 14-37), 칼리굴라(A.D. 37-41), 클라우디우스(A.D. 41-54) 그리고 네로(A.D. 54-68)였다.

3. 주제

누가복음의 저자이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가 “먼저 쓴 글”에서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의 모든 일을 다루었다고 선언한다(행 1:1).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출생과 사역을 기록하였고 사도행전에서는 승천 이후의 제자들의 사역을 기록하였다.

그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주요 주제로 삼고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로 전파되었는지를 기록하였다. 또한 그는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져야 한다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잘 기록하였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에게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독교는 온 세상 사람들의 것임이 사도행전을 통해 보다 자세히 증거되고 있다.

또한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강조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음을 기록했다. 이러한 사도행전의 주제는 오늘날 교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4. 개요

Ⅰ. 서론 1:1-11

1. 누가의 "먼저 쓴 글",복음 1:1
2. 복음 위탁 1:2-8
3. 그리스도의 승천 1:9-11

Ⅱ. 예루살렘에서의 봉사 1:12-7:60

1. 성령의 권능을 기다림 1:12-26
   (1)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옴 1:12, 13
   (2) 기도에 힘씀 1:14
   (3) 유다의 죽음 1:15-20
   (4) 유다를 대신하여 맛디아를 지명함 1:21-26

2. 성령의 권능 2:1-47
   (1) 성령을 받음 2:1-13
   (2) 베드로의 설교 2:14-36
   (3) 설교의 결과 2:37-41
   (4) 초기 교회의 헌신과 성장 2:42-47

3. 앉은뱅이를 고침 3:1-4:31

(1)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진 치료의 이적 3:1-11

(2) 베드로의 설교 3:12-26

① 유대인들에 대한 비난 3:12-18

② 회개를 촉구함 3:19-26

(3) 베드로와 요한의 체포 4:1-4

(4) 사도들의 심문과 석방 4:5-22

(5) 교회의 찬양 예배 4:23-31

4. 초기 기독교 공동체 4:32-6:7

(1) 물질의 공동체 4:32-5:11

① 믿는 자들이 그들의 소유을 나눔 4:32-37

②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기만과 죽음 5:1-11

(2)공적인 반대 5:12-40

① 치료의 기적 5:12-16

② 사도들의 체포, 풀려남, 재체포 5:17-28

③ 베드로의 증언 5:29-32

④ 중재를 위한 가말리엘의 호소 5:33-40

(3) 집집마다 전파함 5:41, 42

(4) 집사들의 임명 6:1-7

5. 스데반의 체포와 죽음 6:8-7:60

(1) 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의 설교 6:8-10

(2) 스데반의 체포와 심문 6:11-7:53

① 체포 6:11-14

② 스데반의 얼굴이 빛남 6:15

③ 그의 항변 7:1-53

(3) 스데반의 죽음 7:54-60

Ⅲ. 팔레스타인과 수리아 지방에서의 봉사 8:1-12:23

1. 핍박하에서 교회가 흩어짐 8:1-4

2. 사마리아에서의 빌립, 베드로, 요한 8:5-25

(1) 빌립의 성공적인 봉사 8:5-13

(2) 베드로가 시몬과 그의 성직 매매를 꾸짖음 8:14-25

3. 빌립의 또 다른 선교 8:26-40

(1) 빌립과 에디오피아인 8:26-39

(2) 아소도와 가이사랴에서의 빌립 8:40

4. 사울의 개종 9:1-31
(1) 박해자 다소의 사울 9:1, 2
(2) 사울의 그리스도 환상과 잇따른 개종 9:3-17
(3) 그의 침례와 첫 전도 9:18-22
(4)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의 음모 9:23, 24
(5) 바나바와 예루살렘으로 피하여 다소로 돌아옴 9:25-30
(6) 교회가 핍박으로부터 평안해짐 9:31

5. 베드로의 후기 봉사 9:32-10:48
(1) 치료의 이적 9:32-42
① 애니아의 중풍병을 고침 9:32-35
② 도르가가 부활함 9:36-42
(2) 고넬료의 개종 9:43-10:48
① 고넬료가 욥바의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냄 9:43-10:8

②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베드로의 환상 10:9-16

③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를 가르침 10:17-43

④ 고넬료와 그의 가속이 침례 받음 10:44-48

6.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됨 11:1-30

(1) 베드로가 사도들 앞에서 그의 이방인 선교를 옹호함 11:1-18

(2) 복음이 팔레스타인을 넘어 유대인들에게 11:19-21

(3) 안디옥에서의 바나바와 바울 11:22-26

(4) 유대의 기근이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구제받음 11:27-30

7. 야고보와 베드로가 핍박 받음 12:1-23

(1) 헤롯 아그립바 Ⅰ세에 의한 야

고보의 투옥과 처형 12:1, 2

(2) 베드로의 투옥과 기적적인 출옥 12:3-19

(3) 헤롯 아그립바 Ⅰ세의 죽음 12:20-23

Ⅳ.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 12:24-14:28

1. 안디옥에서의 바울과 바나바 12:24, 25

2.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에 의해 유임됨 13:1-3

3. 그들의 봉사 13:4-14:28

(1) 구브로 13:4-12

(2) 버가, 마가 요한의 떠나감 13:13

(3) 비시디아 안디옥 13:14-50

(4) 이고니온 13:51-14:5

(5) 루스드라 14:6-19

(6) 더베, 그리고 비시디아를 통해 돌아옴 14:20-23

(7) 안디옥에 돌아옴 14:24-28

Ⅴ. 예루살렘 총회 15:1-35

1. 유대화주의자들과의 갈등 15:1, 5

2. 대표자들이 총회에 파견됨 15:2-4

3. 토의 15:6-18

4. 결정 15:19-29

5. 결정이 안디옥에 알려짐 15:30-33

6. 실라, 바울, 바나바가 안디옥에 남음 15:34, 35

Ⅵ.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15:36-18:22

1. 바울과 바나바 사이의 불화 15:36-39

2. 바울과 실라가 길리기아로 떠남 15:40, 41

3.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부름 16:1-3

4. 갈라디아에서의 봉사 16:4-10

(1) 교회들을 돌봄 16:4, 5

(2)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대한 성령의 억제 16:6, 7

(3) 드로아에서의 마게도냐인의 부름 16:8-10

5. 유럽에서의 복음 16:11-18:17

(1) 빌립보 16:11-40

(2) 데살로니가 17:1-9

(3) 베뢰아 17:10-14

(4) 아덴 17:15-34

(5) 고린도 18:1-17

① 바울의 수고 18:1-5

② 회당으로부터의 추방 18:6-11

③ 갈리오의 개입 18:12-17

6. 안디옥으로 돌아옴 18:18-22

Ⅶ.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 18:23-21:17

1. 갈라디아와 브루기아에서의 봉사 18:23

2. 에베소와 고린도에서의 아볼로

18:24-28

3. 바울이 침례 요한의 개종자들에게 재침례를 줌 19:1-7

4. 에베소의 복음화 19:8-41

5. 마게도냐와 헬라에서의 선교 20:1-5

6. 드로아에서의 첫날 회집 20:6-12

7.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과 만남 20:13-38

8. 예루살렘으로의 여행 21:1-17

Ⅷ. 바울의 체포와 심문 21:18-26:32

1. 사도들에게 한 바울의 보고와 성전에서의 결례 21:18-26

2. 소동 21:27-32

3. 바울의 구류 21:33-39

4. 군중 앞에서의 바울의 항변 21:40-22:22

5. 바울의 첫번째 투옥 22:22-26:32
   (1) 말할 기회를 얻음 22:22-30
   (2) 산헤드린 앞에서의 항변 23:1-10
   (3) 바울의 환상 23:11
   (4) 바울에 대한 유대인의 음모 23:12-22
   (5) 바울이 가이사랴로 보내짐 23:23-35
   (6) 벨릭스 아래서 구류됨 24:1-27
   (7) 베스도로부터 가이사에게 대한 바울의 호소 25:1-12
   (8) 베스도가 헤롯 아그립바 Ⅱ세와 의논함 25:13-27
   (9) 아그립바와 베스도 앞에서의 바울의 항변 26:1-29
   (10) 그의 무죄가 확인됨 26:30-32

Ⅸ. 로마 여행과 투옥 27:1-28:31

1. 항해 27:1-28:16

(1) 가이사랴에서 무라로 27:1-5

(2) 무라에서 미항으로 27:6-12

(3) 그레데에서 파선되기까지 27:13-44

① 폭풍 27:13-20

② 최후의 안전에 대한 바울의 확신 27:21-26

③ 파선 27:27-44

(4) 멜리데 섬에 상륙함 28:1-10

(5) 로마 여행 마침 28:11-16

2. 로마의 유대인들 앞에서 한 바울의 항변 28:17-29

3. 로마에서의 바울의 2년 28:30, 31

제 2 장 성령님의 역사하심

1.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행 1:4).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머물라 하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머물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곳에 머물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주님께서 머물라 하신 곳에 머무는 것이 중요할까요?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기본적인 조건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머물고 있습니까? 혹 당신은 주님께서 싫어하는 곳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 1:4]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2.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행 1:8).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더 의지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힘과

[행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능력으로 일을 행할 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일하는 것과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 일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 서로 나눠 봅시다. 당신은 누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당신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때와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며 살 때의 차이를 직접 체험하였다면 그것을 서로 나눠 봅시다.

3. 제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함께 모였을 때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행 1:13-14). 이처럼 기도는 믿는 자에게 두려움을 떨쳐주며 강력해지게 합니다. 믿는 자는 서로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형제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기도가 왜 믿는 자에게 중요할까요?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형제와 함께 기도합니까? 당신에게 있어 기도는 어떠한 유익을 가져다줍니까?

[행 1:13]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태와 및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행 1:14]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4.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명한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기도를 드렸을 때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었습니다(행 2:1-3). 그곳에 모인 성도들은 성령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충만은 이처럼 매우 강력한 의미입니다. 모름지기 성도라면 반드시 이러한 강력한 성령체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바람과 불이 임하는 강력한 성령충만함을 체험하였습니까? 지금도 그런 체험을 누리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오순절날 성도들에게 임하였던 성령충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오늘날 사용하는 성령충만이라는 단어와 오순절날의 성령충만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당신은 성령충만합니까? 그 성령충만함이 오순절날의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성령충만함입니까?

[행 2:1]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행 2:2]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행 2:3]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세례의 종류

세례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의식으로 교회에서는 성찬의식과 함께 가장 중요한 의식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다 확고히 정립하게 됩니다. 세례의식에는 물세례와 성령세례, 그리고 불세례가 있습니다.

* 물세례
물세례는 사람들 앞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식을 통하여 부부가 되었음을 사람들 앞에 선언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마 3:13] 이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마 3:14]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마3:15]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는 부활 후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아가 세례를 베풀 것을 명하셨습니다.

"[마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물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물세례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몸으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롬 6: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물세례는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엡 4:22]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엡 4:23]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엡 4: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물세례의 선결조건은 회개입니다.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하며 그 죄를 자복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물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행 2:38]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 성령세례
성령세례는 성령으로 받는 세례입니다. 성령세례를 받기 위해서 선결되어져야 하는 조건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세례를 받습니다.

"[롬 10: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성령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세례만 받은 사람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성령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세례보다 성령세례가 중요합니다. 물세례가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성령세례를 통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행위이지만 성령세례는 하나님께 보여지는 의식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세례자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 불세례
세례요한은 자신의 능력과 주님의 능력의 차이를 이해했습니다. 세례요한은 물세례만 베풀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성령세례와 불세례를 주십니다. 세례요한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마 3:11]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

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세례를 주시며 또한 불세례를 주십니다. 불세례는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는 것이 불세례입니다. 불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수행할 수 있으며 악한 세력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받은 사람은 불세례를 받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고전3: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오순절날 성령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후로 성령충만함을 받을 때에 그곳엔 방언의 은사가 함께 나타난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행 2:4). 방언의 은사는 성령충만할 때 나타나는 기본적인 은사입니다. 나에게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습니까?

   ▶ (그룹제안) 성령충만할 때 방언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때문일까요? 방언의 은사는 성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당신은

[행 2:4]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을 하고 있습니까?

6. 성령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받음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는 사람에게는 예언하고 환상을 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행 2:17-18).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성령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예언과 환상이 나타날까요? 당신은 예언하고 환상을 봅니까? 당신에게 그런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무엇때문입니까?

[행 2:17]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행 2:18] 그 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7. 베드로가 전한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심령에 찔림이 있었습니다(행 2:37). 저들에게 이러한 찔림이 있음으로 인해 저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심령에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심령이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도 전혀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의 찔

[행 2:37]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림이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베드로의 설교는 사람들의 심령에 찔림을 갖게 했을까요? 어떤 설교가 사람의 심령에 찔림이 있게 할까요? 당신은 설교말씀을 듣고 심령에 찔림이 있습니까? 그 찔림은 당신으로 하여금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8.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였습니다 (행 2:38). '회개'는 모든 설교의 근본입니다. 세례요한도 '회개'를 강조했으며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을 받게 합니다. 죄 사함을 받을 때 비로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를 항상 하고 있습니까? 죄사함을 받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성령충만을 받기 위한 필요조건은 무엇입니까? 왜 '회개'가 중요할까요? 당신의 삶 가운데 '회개'가 얼마나 있습니까? 회개를 통해 무엇을 얻었습니까?

[행 2:38]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제 3 장 성령을 통한 변화

1.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에 많은 놀랄운 변화가 있었습니다(행 2:42-47). 나는 성령의 기름부음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은 초대교회 의 변화된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성령의 기름부음을 통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함께 나눠 봅시다.

2.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의 정해진 규례에 따라 기도하였습니다(행 3:1). 기도는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여겼지만 주님께서는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가장 확실한 교제 방법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

[행 2:42]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행 2:43]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행 2:44]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행 2:45]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고
[행 2:46]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행 2: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행 3:1] 제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까?

▶ (그룹제안) 왜 기도가 중요할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당신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고 있습니까?

3.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있는 앉은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선포함으로써 앉은뱅이를 걷게 했습니다(행 3:2-10).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떠한 권세가 있는 것일까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간구한 것을 성취한 체험이 있습니까? 서로 나눠 봅시다

4.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하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뛰어난 언변과 담대

[행 3:2]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행 3:3]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행 3:4]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행 3:5]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행 3:6]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행 3:7]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행 3:8]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행 3:9]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행 3:10]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며 놀라니라

함을 보면서 저들을 비방할만한 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행 4:7-13).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지역의 어부였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언변과 능력은 대제사장 문중의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능력없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기 지식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부여 받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지혜와 능력을 받았던 것일까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무엇때문일까요? 당신은 베드로처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5.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보여주신 환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행 4:15-20). 예수님께서 하나님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보여주신 것을 보신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아버지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것 외에는 행

[행 4:7]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행 4:8]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행 4:9]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행 4:10]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행 4:11]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행 4:12]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행 4:13]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행 4:15]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행 4:16]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행 4:17]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행 4:18]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하지 않았듯이 베드로와 요한도 그리하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나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님께서 들려주신 음성과 보여주신 환상대로 행하고있습니까?

▶ (그룹제안) 어떻게 베드로는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는 것이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일까요? 당신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이 당신의 믿음을 크게 합니까? 서로 나눠 봅시다.

[행 4:19]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행 4:20]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6.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모였습니다(행 4:32).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이는 것은 교회성장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합니다. 이러한 방해로 인해 자꾸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도와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이는 것이 중요할까요? 당신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행 4:32]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7.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교회로 가져와 온 성도가 공유하였습니다(행 4:33-35).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저들의 함께 나눔은 교회를 성장하는데 매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로 더 많이 들어왔으며 교회를 통해 핍절을 면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교회를 통해 구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교회를 통해 구제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재물을 교회에 모두 바쳤던 것일까요? 구제하는 것이 왜 교회에 중요할까요? 왜 교회를 통해 구제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당신은 교회를 통해 형제를 구제하기에 힘쓰고 있습니까?

[행 4:33]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행 4:34]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행 4:35]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러라

8.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의 일부를 감추고서 일부를 전부인양 교회에 바쳤습니다(행 5:1-2).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물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인색함과 억지로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헌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행 5:1]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행 5:2]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러한 헌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을 다해 헌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물은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물은 어떤 것일까요? 당신은 온전한 헌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9.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심령을 꿰뚫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의 일부를 감추었고 마치 전부를 바치는양 사도앞에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한 저의 행동은 성령님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목숨을 취하셨습니다(행 5:3-11).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행동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심을 깨닫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에 대해 잘 몰랐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헌금이 왜 성령을 속이는 것이 되었던 것일까요? 당신은 성령님을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10.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셨

[행 5:3]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행 5:4]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행 5:5]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행 5:6]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행 5:7] 세 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행 5:8]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행 5:9]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대
[행 5:10]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

을 때 저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나타났습니다(행 5:12-13). 그랬을 때 저들은 오히려 성전에 함께 모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함이 저들을 그렇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나는 성령충만함으로 믿는 형제와 늘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당신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행 5:11]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행 5:12]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행 5:13]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11. 사도들을 통해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고침을 받을 정도였습니다(행 5:15-16). 이러한 역사는 성령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가장 강력한 단어입니다. 나는 성령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어떻게 사도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던 것일까요? 성령충만이라는 단어에 대해 서로 나눠 봅시다. 당신은 성령충만한 사람입니까? 당신에게서 하나

[행 5:15]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뉘우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바라고
[행 5:16]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12. 사도들은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행 5:40-42).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쉬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사도들이 이렇듯 최선을 다한 것은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사도들은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였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행 5:40]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행 5:41]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행 5:42]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13. 초대교회에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사도들은 교회에 집사를 세웠습니다(행 6:1-6). 집사들에게 일반적인 사항을 모두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조금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와 말씀전하는 것에만 전무하였습니다. 교회에 분업화가 이뤄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질서입니다. 한 사람이

[행 6:1] 그 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행 6:2]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행 6:3]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다 해도 안되고 다른 사람의 일을 간섭해도 안될 것입니다. 나는 교회내의 질서를 따르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사도들은 집사를 세웠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는 무엇일까요? 당신의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은 질서가 있습니까? 당신은 그러한 질서에 순응하고 있습니까?

[행 6:4]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행 6:5]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행 6:6]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제 4 장 환란 중에 전도함이라

1. 스데반이 공회에 끌려갔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로 삼았습니다(행 7:1-2). 스데반에게 있어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순간을 오히려 기회로 삼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나는 스데반처럼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졌습니까? 그 기회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스데반에게 있어서 공회에 끌려간 것이 어떻게 기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당신은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데 기회를 얻고 있습니까?

[행 7:1]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행 7:2]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2.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였을 때 하나님을 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본다고 말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행 7:55-60). 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충만한 자

[행 7:55]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행 7:56]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행 7:57]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행 7:58]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행 7:59]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뵙습니까?

▶ (그룹제안) 스데반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했을 때 왜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을까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왜 하나님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화를 나누는 것에 대해 좋지 않는 시선을 던지는 것일까요? 당신은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행 7:60]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3.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인해 성도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행 8:1-2).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핍박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저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때문일까요? 당신

[행 8:1]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행 8:2]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4.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행 8:4-8).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싫어한 지역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때문이었습니까? 당신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행 8:4]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행 8:5]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행 8:6]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행 8:7]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앉은뱅이가 나으니
[행 8:8]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5. 초대교회에서는 안수를 행하였습니다. 안수는 신앙의 매우 기본이 되는 것 중의 하나였습니다(행 8:12-17). 실제로 안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상대방에게 전이가 됩니다. 또한 안수를 통해서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습니다. 나는 안수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전이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초대교회 때는 안수가 신앙의 기본적인 것이었을까요? 왜 오늘날에는

[행 8:12]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행 8:13]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 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행 8:14]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행 8:15]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행 8:16]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특별한 경우에만 안수를 하는 것일까요? 당신은 안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전이받았습니까? 당신은 안수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전이하고 있습니까?

[행 8:17]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6. 시몬은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했습니다(행 8:18-20).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돈을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충만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충만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시몬의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까? 그것이 돈으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충만할 때 거저 받은 것입니까?

[행 8:18]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행 8:19]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행 8:20]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7. 빌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일일이 말씀해 주셨습니다(행 8:26-40). 빌립은 하나님의 음성대로 행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빌립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때문이었을까요? 빌립

[행 8:26]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행 8:27]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행 8:28]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아사야의 글을 읽더라
[행 8:29]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

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어떠한 마음을 갖게 했을까요? 당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라 하시거늘
[행 8:30]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행 8:31]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행 8:32]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행 8:33]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행 8:34]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행 8:35]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행 8:36]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행 8:37] (없음)
[행 8:38]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행 8:39]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행 8:40]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제 5 장 사울이 주님을 만나다

1.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쓰고자 하실 때 그 사람을 제어하십니다. 사울을 쓰시고자 하셨을 때 그의 눈의 시력을 없앴습니다(행 9:1-9).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세상의 더러운 것을 빼내어서 사용하십니다. 세상의 것을 빼내는 과정에서 환란과 고난과 역경과 질병을 당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주시는 환란과 역경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 (그룹제안) 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쓰고자 하실 때 그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요? 당신은 고난과 역경이 당신을 쓰고자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까?

2. 아나니아는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병고침을 위한 안수를 행하라는 하나님

[행 9:1]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행 9:2]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무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행 9:3]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행 9:4]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행 9:5]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행 9:6]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행 9:7]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행 9:8]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행 9:9]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행 9:10] 그 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행 9:11]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

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가서 사울을 안수해 주었습니다(행 9:10-18). 나는 때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 (그룹제안)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때문이었을까요? 당신은 아나니아처럼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3. 사울은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그 즉시로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행 9:19-22).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사울이 그토록 빨리 예수님을 증거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신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이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만드는 것일까요?

4. 사울이 회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사울과 사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행 9:12]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행 9:13]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행 9:14]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행 9:15]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행 9:16]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행 9:17]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행 9:18]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행 9:19] 음식을 먹으매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행 9:20]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행 9:21]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

(행 9:23-27). 워낙 사울을 통해 핍박을 많이 받았기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은 사도들을 만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사역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바나바같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바나바처럼 곤경에 처한 형제를 돕습니까?

▶ (그룹제안) 바나바가 했던 잘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사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신은 곤경에 처한 형제를 돕고 있습니까? 당신을 통해서 형제가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거하게 되었던 체험이 있다면 서로 나눠봅시다.

5.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행 9:28-30). 이 사실을 안 사도들은 사울의 사역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이사랴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의 고향으로 가서 안전하게 있으라고 배려하였습니다. 어쩌면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옳다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지혜롭게 사

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행 9:22]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행 9:23]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행 9:24]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행 9:25]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리니라
[행 9:26]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 됨을 믿지 아니하니
[행 9:27]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행 9:28]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행 9:29]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행 9:30]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역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사도들은 사울에게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멈추고 고향에 내려가 있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롭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지혜롭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사역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않습니까?

제 6 장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다

1.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이유는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입니다(행 10:1-6).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형제에게 구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고넬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구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일까요? 당신은 얼마나 형제를 구제하고 있습니까?

2.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홀로 드리는 기도를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입신의 기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행 10:9-16).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골방기도 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일

[행 10:1]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야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행 10:2]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행 10:3] 하루는 제구 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행 10:4]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행 10:5]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행 10:6]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행 10:9]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 육 시더라
[행 10:10]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행 10:11]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 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매어 땅에 드

대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나는 골방에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골방기도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기도할 때 '비몽사몽'하는 상태가 되었는데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당신은 골방에서 하나님께 은밀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기도에는 베드로처럼 능력이 나타납니까?

3. 베드로는 고넬료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자신이 봤던 환상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성령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을 때 함께 갔습니다(행 10:17-20). 베드로는 성령하나님과 매우 친숙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이렇듯 친숙한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음성과 환상을 통해 우리의 행할 바를 알려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베드로가 성령하나님과 나눈 교제의 깊이에 대해 살펴 봅시다. 당신은 베드로처럼 그런 교제함이 있습니까?

리웠더라
[행 10:12]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행 10:13]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행 10:14]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삽나이다 한대
[행 10:15] 또 두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행 10:16]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행 10:17]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의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행 10:18]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행 10:19]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행 10:20]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4. 베드로는 비록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하셨기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행 10:21-23). 이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먼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삶이 소중한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까?

▶ (그룹제안)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행했던 체험을 함께 나눠봅시다.

[행 10:21]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행 10:22]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행 10:23]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욥바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5.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자와 의로운 자를 찾으십니다(행 10:34-35).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행 10:34]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행 10:35]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 (그룹제안) 베드로가 고넬료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6. 유대파 성도들은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 비난하였습니다(행 11:1-18). 저들이 사람의 외모로 판단한 것입니다. 오직 영적으로 사는 자만이 사람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영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안에 모두가 형제자매임을 믿습니까?

▶ (그룹제안) 왜 유대파 성도들은 베드로를 비난했을까요? 혹 당신에게도 유대파 성도들처럼 그런 육적인 외모로만 사람을 판단하며 정죄하는 죄가 있습니까?

7. 핍박에 흩어진 성도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중의 몇사람이 안디옥의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행 11:19-21). 상상외로 헬라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가립니다.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는 이유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행 11:1]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행 11:2]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행 11:3]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행 11:4]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행 11:5] 가로되 내가 욥바 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네 귀를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에까지 드리우거늘
[행 11:6]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행 11:7]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행 11:8]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행 11:9] 또 하늘로부터 두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행 11:10]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행 11:11] 마침 세 사람이 내 우거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행 11:12]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행 11:13]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서는 온 세상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성도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려 했던 것일까요? 당신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구별하여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 11:14] 그가 너와 네 온 집의 구원 얻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행 11:15]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행 11:16]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행 11:17]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관대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행 11:18]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행 11:19]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행 11:20]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행 11:21]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제 7 장 바울의 1차 전도여행

1. 안디옥교회는 주님을 섬기는 것과 금식하는 것이 저들의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것이었습니다(행 13:1-3). 그럴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금식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정욕을 없애주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도와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행하곤 합니다. 하지만 금식은 잃어버린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금식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금식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당신은 금식을 왜 하고 있습니까? 금식을 통해 얻은 것이 있다면 함께 나눠 봅시다.

[행 13:1]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행 13:2]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2.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셨을 때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저들에게 안수하며 파송하였습니다(행 1:3). 초대교회에서 안수는 신앙생활의 기초적인 요소였습니다. 매우 빈번하게 행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매우 특별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좀처럼 안수하지 않습니다. 나는 안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피안수자에게 전이되는 것

[행 13:3]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을 믿습니까?

▶ (그룹제안) 왜 안디옥교회는 안수함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였을까요? 안수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당신은 안수를 자주 행하고 있습니까? 안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피안수자에게 전달되는 증상을 받으셨습니까? 함께 나눠 봅시다

3. 바울은 바보에 사는 박수 바예수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럴 때에 그가 거짓 선지자임을 분별하였습니다(행 13:6-9). 그의 정체가 탄로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바예수가 거짓 선지자임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령충만하여 다른 사람의 영을 분별합니까?

▶ (그룹제안) 어떻게 바울은 바예수가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당신은 바울처럼 다른 사람의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4.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바예수가 그것을 훼방하였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권세를

[행 13:6]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행 13:7]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행 13:8]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행 13:9]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지고 바예수를 심하게 꾸짖었습니다(행 13:10-12). 그랬을 때 저가 한동안 소경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가로막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전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습니까? 혹 누군가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까?

▶ (그룹제안)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형벌이 따릅니까? 혹 당신 주변에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함으로 인해 형벌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행 13:10] 가로되 모든 궤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행 13:11]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행 13:12]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히 여기니라

5.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유대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성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행 13:47-49). 예수를 전하였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은 바울이 지혜롭게 설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롭게 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유대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좋아했을까요? 당신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

[행 13:47]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행 13:48]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행 13:49]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특별한 말씀전하는 방법이 있는것일까요?

6. 바울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좇게되자 유대인 중의 어떤 사람들이 시기하여 바울을 변박하고 비방하며 쫓아내었습니다(행 13:50-52).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처럼 시기와 핍박을 받게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시기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러한 시기와 핍박을 받을 때에도 좌절하지 않으며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바울은 시기와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받게 되는 시기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럴때 어떻게 행합니까?

[행 13:50]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케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행 13:51]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행 13:52]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7.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을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였습니다(행 14:1-7). 그렇게 표적과 기사와 함께 은혜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셔서 듣는 자로 하여금 복음을 잘 받아

[행 14:1]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행 14:2]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행 14:3]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행 14:4]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좇는 자도 있고 두 사

드리도록 도와 주십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며 은혜의 말을 전하게 하심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잘 전하도록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당신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체험이 있으면 함께 나눠 봅시다.

도를 좇는 자도 있는지라
[행 14:5]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행 14:6]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행 14:7]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8. 바울이 루스드라의 앉은뱅이를 치유할 때에 주목하여 저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행 14:8-10). 치유받기 위해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믿음을 가짐으로써 질병을 치유받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바울은 앉은뱅이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주목하였을까요? 우리의 질병이 치유받기 위해 믿음이 왜 필요할까요? 당신은 믿음으로 질병을 치유받은 적이 있습니까?

[행 14:8]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행 14:9]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행 14:10]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9. 루가오니아 지역 사람들이 앉은뱅이를 치유하는 것을 보면서 하늘의 신들이 이 땅에 내려온 것으로 받아 드렸습니다. 급기야 저들

은 바울과 바나바를 우상처럼 숭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의 이러한 우상숭배적인 행위에 대해 꾸짖으며 자제시켰습니다(행 14:11-15).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삶과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당신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있습니까?

[행 14:11]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행 14:12] 바나바는 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메라 하더라
[행 14:13] 성 밖 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행 14:14]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행 14:15]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10. 초대교회에 이방인들의 개종으로 인해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갈등이 생겼습니다(행 15:1-2).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여야 한다고 했고 이방인 측은 그럴 필요까지 있냐고 서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이 일로 교회 지도자가 함께 모였고 예루살렘 공의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매우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다툼이 없어야 하며 다툼이 있을 때 매우 지혜롭게 해결해야 합니다. 나는 교회의 다툼을 어떻게 해결

[행 15:1]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행 15:2]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

하고 있습니까? 지혜롭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초대교회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의 어떤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까? 교회 지도자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당신의 교회는 다툼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해결방법은 무엇일까요?

11.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길 원하십니다. 절대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를 구분하지 말라 하셨습니다(행 15:7-11). 오직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 때 인종이나 성별이나 나이나 학력을 구별하지 않고 전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하나님께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세우신 규칙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은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12. 유대인과 이방인간의 갈등이 있을 때 교회는 매우 질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행 15:12-21). 베드로가 말을 전하였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베드로

[행 15:7]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행 15:8]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행 15:9]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행 15:10]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행 15:11]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행 15:12]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행 15:13]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의 말이 끝났을 때 야고보가 말을 전하였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매우 질서적이었습니다. 나는 교회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의 삶에는 질서가 있습니까?

▶ (그룹제안) 초대교회는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간의 갈등을 해소했습니까? 초대교회의 질서처럼 당신의 교회 또한 질서적입니까? 당신의 삶에는 질서가 있습니까?

13.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사도들이 보낸 편지를 읽고 기뻐합니다(행 15:30-31). 저들은 사도들의 내린 결정에 대해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사도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러한 질서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교회에 속한 자는 질서에 순응해야 합니다. 나는 교회의 질서대로 순응하며 살아갑니까?

▶ (그룹제안)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사도의 내린 결정을 그대로 받아드리고 순종하며 기뻐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들이 사도들의 말에 순종할 수 있던 것은 무엇때문일까요? 당신은 교회의 질서대로 순응하며 살아갑니까?

내 말을 들으라
[행 15:14]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행 15:15]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행 15:16] 이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행 15:17]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행 15:18]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행 15:19]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행 15:20]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행 15:21]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행 15:30]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행 15:31]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제 9 장 바울의 2차 전도여행

1.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성공적으로 모임을 마친 후에 안디옥교회를 치리하다가 다시금 2차 전도여행을 계획했습니다(행 15:36).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지역을

[행 15:36]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다시금 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영성성장을 위해 끝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당신은 당신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을 돌아보며 저들의 영성성장을 위해 관심과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까?

2.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행 15:37-41). 1차 전도여행 때 마가요한이 중도에 하차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바울과 바나바는 각자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형제와 다툼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형제의 다툼의 죄를 덮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형제와 다툼이 있지는 않습니까?

▶ (그룹제안) 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습니까? 다툼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 당

[행 15:37]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행 15:38]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행 15:39]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행 15:40]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행 15:41]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신은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형제와 다투었던 적이 있습니까?

3. 바울은 헬라인 디모데를 제자로 삼고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 위해 가장 먼저 할례의식을 행하였습니다(행 16:1-3). 이는 유대인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지역 사람들의 마음에 거부감을 주는 것을 배제하였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사람의 거하는 지역의 전통과 관습을 존중하며 행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의식을 행하였습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에게 할례의식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는데 말입니다. 혹 당신은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의 전통이나 관습을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행 16:1]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행 16:2]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 받는 자니
[행 16:3]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앎이러라

4.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다녀갔던 지역을 다시금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유럽지역에 복음을 전하길 원하셨습니다(행 16:6-10). 바울은 하

[행 16:6]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행 16:7]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행 16:8]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 갔는데
[행 16:9]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바울은 아시아로 가지 아니하고 유럽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행 16:10]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5.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데리고와서 소동을 벌이며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며 핍박하였습니다 (행 17:1–9). 누군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가로막거나 핍박하는 것은 주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로막는 것이고 주님을 때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핍박하는 자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함으로 핍박을 받을 때 그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보다는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 (그룹제안) 왜 누군가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할 때에 그것은 곧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 되는 것일까요? 당신이 복음을 전한 이유때

[행 17:1]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행 17:2]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세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행 17:3]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행 17:4]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좇으나

[행 17:5]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행 17:6] 발견치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행 17:7] 야손이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

문에 당신을 핍박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당신을 핍박하는 사람이 곧 주님을 핍박하는 것임을 믿습니까?

6. 바울은 아덴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였습니다(행 17:16-18). 그것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전해야 할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다른 것을 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을까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전하고 있습니까?

7. 바울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행 17:22-31). 회개는 심판을 벗어나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전해야 합니다. 회개는 우

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행 17:8]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행 17:9]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놓으니라

[행 17:16]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행 17:17]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행 17:18]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새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러라

[행 17:22]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행 17:23]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며 주님께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회개하는 것은 중요한 것일까요?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회개에 대해 서얼마나 증거하고 있습니까? 당신 스스로 회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회개를 통해 변화된 당신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8. 바울은 전도여행 중에 유대인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울도 인간인지라 핍박을 통해 심신이 피곤해졌습니다. 그럴때마다 주님께서 바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행 19:9-10). 주님은 바울에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형제들은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때 도움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함께 하는 형제를 통해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주님의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말씀이 바울에게 힘이 되었을까요? 당신에게 있어서 형제는 힘과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혹 형제로부터 오히려 아픔과 상처를 당하지는 않습니까?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행 17:24]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행 17:25]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행 17:26]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행 17:27]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행 17:28]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행 17:29]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행 17:30]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행 17:31]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행 18:9]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9.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가르쳤습니다(행 18:23-25). 아굴라는 저들을 통해 열심히 그리스도의 깊은 도를 배웠습니다. 아굴라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지만 저들을 통해 성령충만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서로 가르치고 배우길 원하십니다. 나는 가르치고 배움으로써 성령충만함으로 깊있는 깨달음이 있습니까?

▶ (그룹제안) 무엇이 아볼로에게 아굴라 부부를 통해 더 깊은 성령충만함에 대해 배우도록 했을까요?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전한 그리스도의 도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은 교회 안에서 가르치며 또한 배우고 있습니까?

10. 아볼로가 더 깊은 성령충만함을 깨달았을 때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성도들은 아볼로의 그런 복음전함을 장려하며 저를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행 18:26-28).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를 중보기도와 후원으로 도와야 합니다. 나는 복음 전하는 자를 기도와 후원으로 돕고 있습니까?

[행 18:10]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매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행 18:23]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행 18:24]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행 18:25]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행 18:26]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행 18:27]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행 18:28] 이는 성경으로써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일러라

▶ (그룹제안)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려 했을 때 성도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당신은 복음을 전하는 형제를 위해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제 10 장 바울의 3차 전도여행

1. 바울이 에베소에서 요한의 세례밖에 받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라며 성령세례를 받아야 함을 증거했습니다(행 19:1-5). 성령세례를 받을 때 비로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 그것은 곧 주

[행 19:1]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행 19:2]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행 19:3]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님과 함께 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령세례를 받음으로 성령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바울이 말한 "성령을 받았느냐?"는 무슨 의미입니까? 왜 성령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당신은 성령세례를 받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행 19:4]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행 19:5]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2. 바울은 요한의 세례밖에 받지 못한 제자들에게 안수를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에게 임하였습니다(행 19:6-7). 저들은 곧 성령세례를 받게 되었으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행했습니다. 이렇듯 안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피안수자에게 전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안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바울은 제자들에게 안수를 행했을까요? 도대체 안수는 어떠한 것인가요? 당신은 안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까?

[행 19:6]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행 19:7]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3. 바울은 두란노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원래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당을 떠나 따로 두란노서원을 세우고 그곳에 제자를 세워 함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행 19:8-10).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바울은 두란노서원이라는 것을 활용하였듯이 우리 또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는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바울은 왜 두란노서원을 세워 복음을 전하였을까요? 당신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행 19:8]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행 19:9]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행 19:10]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4. 바울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몸에서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을 때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났습니다(행 19:11-12).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시대에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러한 능력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는 성령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나타날 것입니다. 다만 믿음으로 행할 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것입

[행 19:11]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행 19:12]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어떻게 바울은 그런 큰 능력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당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왜 바울과 당신의 능력에는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큰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5.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였습니다. 마술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마술에 관련된 책들을 가지고 나와 모두 불사랐습니다(행 19:17-20). 나는 하나님께 나의 더럽고 추한 것을 버림으로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갑니까?

▶ (그룹제안) 왜 마술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책들을 모두 불사랐을까요? 당신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버렸던 것은 무엇입니까?

[행 19:17]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행 19:18]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행 19:19]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오만이나 되더라
[행 19:20]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6.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바울이 어떻게 저들을 섬겼으며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지에 대해 고백하였습니다(행 20:17-21).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에 있어서 핍박과 시험을 참으로 늘 눈물과

[행 20:17]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행 20:18]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행 20:19] 곧 모든 겸손과 눈물

겸손함으로 하였습니다. 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받게 되는 시험과 핍박을 견디며 겸손함과 눈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시험을 참고 눈물과 겸손함으로 행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신은 주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 눈물과 겸손함이 있습니까?

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행 20:20]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행 20:21]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7.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행 20:22-24). 바울이 그러했던 것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였기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나의 목숨을 버리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 (그룹제안) 어떻게 바울은 주님을 위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을까요? 당신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행 20:22]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 20:23]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행 20:24]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8. 바울은 사람들에게 "나를 본 받으라"고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행 20:31-35). 바울은 스스로 거짓됨이 없이 진실됨으로 주님을 사랑했고 형제를 사랑했기때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스스로 "나를 본 받으라"고 말했던

[행 20:31]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삼 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행 20:32]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케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것입니다. 스승은 지식만 전하지만 영적아비는 자녀에게 스스로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본이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바울은 "나를 본 받으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스승'과 '영적아비'의 삶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스스로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시리라
[행 20:33]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행 20:34]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행 20:35]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9. 예루살렘에 있는 수만명의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바울에 대해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바울이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다는 잘못된 소문때문입니다(행 21:17-21).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율법을 더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우상숭배와 다를바 없었습니다. 나는 율법보다 주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유대인들은 바울을 싫어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당신은 율법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 21:17]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행 21:18]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행 21:19]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행 21:20]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
[행 21:21]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10.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을 때 야고보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의해 핍박을 받을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여 율법지키는 자들의 불만을 해소하라고 권유하였습니다 (행 21:22-26). 바울이 성도의 뜻대로 결례를 행하였는데 이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비록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포용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연약한 자를 먼저 돌아보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바울은 결례를 행하였을까요? 혹 당신은 복음을 위해 형제의 연약함을 용납한 적이 있습니까?

[행 21:22]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의 온 것을 들으리니
[행 21:23]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행 21:24]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행 21:25]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행 21:26]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의 만기 된 것을 고하니라

제 11 장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1. 바울을 죽이기까지 절대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행 23:12-14). 저들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하는지조차 모르면서 바울을 죽이려했던 것입니다. 저들이 그토록 바울에 대한 악한 감정이 있었던 것은 마귀가 저들 마음에 심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사람을 통해 믿는 자를 공격합니다. 나는 악한 자의 공격을 잘 대적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40명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했을까요? 마귀는 사람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혹 당신은 마귀에게 사로잡힌사람으로 인해 고난과 핍박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2.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지 12일째만에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난 것은 그만큼 악한세력이 주님의 복음 전파됨을 싫어하고 그것을

[행 23:12]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행 23:13] 이같이 동맹한 자가 사십여 명이더라
[행 23:14]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 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대적하는 것입니다(행 24:11-12). 이처럼 악한자는 아주 빠르고 강하게 복음 전하는 자를 공격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경계해야 합니다. 나는 악한 자의 공격을 경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어떻게 12일만에 그런 큰 소동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혹 당신에게도 이처럼 빠르고 강한 악한자의 공격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행 24:11]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못되었고
[행 24:12]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3. 사실상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틀린 부분만을 강조하여 서로 대적하며 싸우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행 24:14-16).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크고 작은 다툼이 있습니다. 이러한 형제간의 다툼 뒤에는 마귀의 간교한 계략이 있습니다. 나는 형제와의 관계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자의 계략을 경계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같은 점은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은 다른 점때문에 서로 다투며 미워하는 것일까요? 당신에게서 이러한 다툼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행 24:14]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좇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행 24:15]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행 24:16]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4. 유대인들이 바울을 송사한지가 2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행 25:1-3). 이처럼 악한자의 핍박은 오랜 시간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나는 악한자의 오랜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인내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바울은 유대인들의 집요한 핍박에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당신에게 있어서 악한자의 핍박이 오래도록 지속되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행 25:1] 베스도가 도임한 지 삼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행 25:2]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새
[행 25:3]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러라

5. 바울은 주님께서 "네가 로마로 가리라"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행 25:9-10, 행 23:11). 주님의 말씀대로 이뤄질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에게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심문을 받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으며 말씀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바울은 로마로 가서 심문을 받겠다고 말했을까요? 당신은 주님의 음성을 그대로 믿으며 그 말씀따라 순종하고 있습니까?

[행 25:9]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심문을 받으려느냐
[행 25:10]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심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6. 바울을 태운 배는 유라굴라 광풍에 의해 파선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행 27:12-17). 이 모든 것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세상의 전문가의 말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지혜를 먼저 좇는 자는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나는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서 행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바울을 태운 배가 파선의 위기를 맞이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인생에 힘든 역경이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당신이 취해야 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행 27:12]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뵈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뵈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 편은 동북을, 한 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행 27:13]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의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행 27:14]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행 27:15]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행 27:16]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행 27:17] 끌어 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7. 바울은 배가 파선될 위기에서도 천사의 전해지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행 27:21-26). 바울은 천사의 말대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그대로 믿기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며 행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으며 행하고 있습니까?

[행 27:21]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행 27:22]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행 27:23]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행 27:24]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행 27:25]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 (그룹제안) 바울이 천사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어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당신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며 그 말씀따라 순종하며 행하고 있습니까?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행 27:26]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8. 바울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였습니다(행 27:33-44).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먹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희망이 있는 자는 음식을 먹는 법입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희망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행사를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까?

▶ (그룹제안) 왜 바울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했습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희망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당신을 돕고 계심을 믿습니까?

[행 27:33]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주린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행 27:34]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터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행 27:35]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행 27:36]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행 27:37]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이백칠십육 인이러라
[행 27:38]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행 27:39]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 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행 27:40]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킷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행 27:41]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가니
[행 27:42]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9. 바울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찾아온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드리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그리스도교가 왜 사람들에게 반대를 받고 있는가? 생각으로

왔기때문에 복음을 받아드리지 않는 사람이 많았습니다(행 28:23-26). 나는 복음을 전할 때 들으려고 준비된 자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복음을 전할 때 들을려고 하는 자를 찾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10. 바울은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받아드리지 않는 것은 저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행 28:27-28). 이처럼 귀를 닫고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리는 사람에게는 좀처럼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심령이 열리도록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이사야가 말했던 '마음이 완악해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왜 복음을 전할 때 귀가 열리고 심령이 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듣고, 믿고, 받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행 27:43]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 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행 27:44]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행 28:23]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행 28:24]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행 28:25]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행 28:26]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행 28:27]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행 28:28]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참영성! 참목회자 양성을 위한

국제신학교
www.WSLseminary.org

국제신학교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이런 분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영혼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강력한 기도의 용사가 되어 기도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각종 성령의 은사(대언예언, 신유은사, 영분별, 방언통변 등)를 통해 강력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목회자의 소명이 있으나 생활책임을 위해 불가불 여가시간으로 신학교를 다니고 싶은 분!

신학생 모집요강

사역학학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목회학학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사역학석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대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목회학석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대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국제신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국제연합)총회의 신학교로서 강도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습니다.

** 국제신학교는 1년 6학기로 운영되고 있으며 능력에 따라 조기 졸업이 가능합니다.

** 국제신학교는 수시입학이 가능하며 한부본 사역자일 경우 학비 면제를 받습니다.

- 접수: www.wslseminary.com
- 이메일: inourlove@gmail.com
- 문의: 손에스더목사(010-3909-8844)
- 유투브채널: www.RevivalForChurch.com